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 축복 제목: 아버지의 축복을 누리는 법

성경: 창세기9장18-29절

18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19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20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21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22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며 23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24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25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26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와는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27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28 홍수 후에 노아가 삼백오십 년을 살았고 29 그의 나이가 구백오십 세가 되어 죽었더라 (창9:18-29)

아버지의 축복.

모든 아버지들은 축복의 권한이 있다. 왜냐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아버지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축복하시지 않고 복을 주신다. 다만 모든 아버지들이 축복하는대로 복을 주신다. (물론 기계적이지는 않다. 까닭 없는 저주는 무효이고, 까닭 없는 축복도 무효다.)

기본적으로 모든 아버지들은 자녀를 축복한다. 그 아비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줄 안다.

11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 7:11)

그래도 축복을 누리는 법이 있다면 다음과 같다.

1. 공경

- 아버지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12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출20:12)

- 한국식 공경과 성경식 공경에는 차이가 있다.

- 성경식 공경은 결혼을 통해서 새로운 가정이 탄생한다고 보기 때문에 결혼 후에는 부모님에 대한 공경의 의미가 달라진다.

- 결혼을 통해서 가장의 지위가 형성된다고 보기 때문에 우선 순위가 달라진다. 이제는 새로운 가정의 가장의 뜻이 우선이 되고, 부모의 뜻은 그 다음이 된다. 경제적으로도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지만, 경제적 독립이 우선이다. (정신적, 영적 물리적 독립)

- 그래서 자녀들이 출가할 때 부모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노여워하는 부모가 있고, 그 때문에 축복마저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모는 공경에 대해서 너무 완고하기 때문에 관계가 단절되는 고통을 겪는다. 심할 경우 선친의 뜻을 내세워 현재를 다스리려는 시도도 있었다.(그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는 되도록 부모의 지시를 따르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다. 세밀하게 간섭(간섭하는 것은 자녀의 앞길을 방해하거나 조종하려는 것을 의미)하지 말라는 뜻이지, 세밀한 배려나 친밀감은 해당되지 않는다.

- 다음으로 공경은 존경을 의미한다.

- 존경은 대접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런 댓가 없이 대접하는 것이다.

- 다음으로 공경은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형편껏 보살핀다는 뜻이다. 물론 형편껏 보살피는 것이지, 지나치게 보살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아버지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2. 아버지의 수치를 덮으라

-이미 아버지가 나의 수치를 많이 덮으셨다.

-아버지를 초라하게 여기지 말라.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라.

-특히 사춘기 때가 매우 민감한 때이다.

-사춘기 때는 아직 아이가 영적으로 완전히 자라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부모의 비리를 알려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마치 이제 너도 알아야 할 때가 되었다는 식으로 사실을 알려주는 불친절한 친척들이 있는데, 대부분 악한 의도로 부모의 비리들을 알려준다.

-이것은 명백하게 아이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므로, 그들은 죄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부모의 비리를 알아서 덕 될 것은 없다.

-그러나 부모의 비리를 알게 되었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는 것은 옳지 못하다. (물론 성직자나, 의사에게 치유를 위하여 상담하기 위해서는 예외가 된다.)

-왜냐면 비리 당사자가 크게 상처를 입고, 분개하게 되기 때문이다.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일을 스스로 덮어주지 않았다. 만약 그랬더라면 심지어 아버지 노아조차도 자신의 실수를 알아채지 못했을 것이다. 함은 사태를 수습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다른 형제들이나 일가 사람들에게 이 일을 알리기 시작하였다.

-짐작컨대 아버지와 둘째 아들 사이에 풀리지 않는 어떤 앙금이 있었던 것 같다. 함은 의도적으로 아버지의 비리를 폭로하였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달랐다. 그들은 아버지의 수치를 일부러 목격하지 않고 덮어 주었다.

-아버지의 수치를 덮지 않을 경우 그는 스스로의 영혼에 치유되기 힘든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아버지를 부끄럽게 여기면서 사춘기가 시작된다.(교회를 부끄럽게 여기면서 영적인 사춘기가 시작된다.)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아버지의 수치를 자신의 선행으로 덮을 줄 알면서 축복의 길로 들어서서 승리하게 된다.

3. 아버지의 유산을 귀하게 여기라

아버지의 유산만큼 귀한 것은 없다.

아무리 초라해도 내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곧 아버지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그 유산을 지키고, 그 뜻(유지)을 지키고, 그 업적을 기억한다는 것은 나에게 큰 의미가 있다.

-내가 그 유산을 지키지 않고, 그 뜻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내가 다른 사람의 유산이나, 다른 사람의 뜻을 지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구약성경 시대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버지의 유산을 귀히 여기면 나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고용하면서 살게 된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유산을 귀히 여겨야 한다. 아멘.

<찬양예배>

주제: 제목: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말씀: 신명기 12장
1-8절

1 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2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3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 곳에서 멸하라

4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것처럼 행하지 말고

5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6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7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8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신12:1-8)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은 찬양과는 그 의미와 목적이 다르다. 찬양은 예배로서의 찬양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한다는 의미도 있다.

죄란 어떤 의미에서는 남편 모르게 아내만 즐거워 하는 것, 또는 다른 식구들 모르게 나 홀로 즐거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두와 즐거워야 한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각기 소견대로 즐기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